

폭력과 성도착(性倒錯)*

— 베트남전쟁 소설에 나타난 정신병리학적 징후의 의미

朴志英**

I. 베트남전쟁, 정신의학 담론과
'남성성/들'

II. 1970년대 정신의학 담론의
젠더/섹슈얼리티 인식과 성도착 징후

III. 전투신경증과 성도착적 징후: 폭력의
연쇄, 피해자에 대한 애도불가능성

IV. 군사적 남성성에 대한 반항과 공명
사이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0년대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다룬 문학 텍스트 송영의 「선생과 황태자」, 송기원의 「경외성서」, 황석영의 「낙타눈깔」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 '변태성욕(성도착)', 전투 신경증 등 정신병리적 징후가 이 전쟁 폭력을 고발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시기 정신의학의 발전과 담론의 대중화로 인해 이 주요 개념들은 당대, 베트남전이라는 폭력적 상황과 만나 어떤 윤리적 규범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성에게 폭력적인 섹슈얼리티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간다. 베트남전에서 자행된 성폭력은 이러한 정신병리학적 징후들을 활용해야만 형상화가 가능한 주체들을 양산한다. 이는 당대 개발 독재, 가부장제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사회적 상황과 베트남전쟁 등 당대 폭력적 경험에 의해 구성된 '남성성'의 형상과 연관된 젠더적 차원의 문제로,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해 강화되어가는 남성성의 기획이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징후들은 전쟁 폭력에 대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8548)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윤리적 자의식을 갖고 있는 남성 주체들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지만, 자신들의 고통을 위로할 뿐 정작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주제어 : 베트남전쟁, 남성성, 정신의학, 프로이트주의, 정신병리적 징후, 변태성욕, 성도착, PTSD(전투신경증), 사이코패스, 비정상성, 애도

I. 베트남전쟁, 정신의학 담론과 ‘남성성/들’

베트남전쟁 참전은 개발 독재 체제 하 한국의 왜곡된 근대화 이념이 투영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의 자본과 권력의 결탁,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폭력에 암묵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수많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¹⁾가 말해 준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연구는 현재 한국군의 전쟁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²⁾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서부터 주체들인 참전군인들의 전시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전쟁에 대한 연구는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반성과 화해를 통한 역사적 폭력과의 싸움으로, 이로 인한 주체들의 트라우마 치유³⁾와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모색하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연구는 현재 한국학계에서 진행 중인 여러 연구 시각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베트남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주의적 시각⁴⁾ 특히 ‘남성성’의 구성에 대한 연구⁵⁾로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더

1) 대표적으로 권현익 저, 유강은 역, 『학살, 그 이후』, 휴머니스트, 2012; 권현익 외 저, 이창호 역, 『베트남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윤충로, 『베트남전쟁과 한국 사회사』, 푸른역사, 2015; 박태균, 『베트남전쟁』, 한겨레출판, 2015; 고경태, 『베트남전쟁 1968년 2월 12일』, 한겨레출판, 2021 등. 한국문학(화) 학계의 연구로도 서은주의 「월남과 한국소설 속의 월남전-집단광기의 역사, 그 고통의 담론」, 『역사비평』 32, 역사비평사, 1995, 정종현, 「베트남전 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를 필두로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재석, 「베트남전쟁을 통한 의식의 변화양상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김경민, 「기억의 재구성과 반성의 문화로」, 『한민족어문학』 82, 한민족어문학회, 2018; 심주형,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우성, 「베트남 참전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서연,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0 등의 석박사학위논문, 김주현, 「과월 특파원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전쟁」, 『현대문학의연구』 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월남전 후반기(1970-1975) 귀환 서사에 담긴 ‘한국민 되기’의 (불)가능성」, 『語文論集』 70, 중앙어문학회, 2017 외 다수.

2) 위의 글 이외에 고경태, 위의 책이 있다.

3) 강성록 · 김세훈 · 이현엽,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예측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33(1), 한국심리학회, 2014 등.

4) 대표적으로 김현아, 『그녀에게 전쟁-여성의 눈으로 전쟁을 말하다』, 슬로비, 2018 외 김은하, 「남성성 획득의 로망스와 용병의 멜랑콜리아-개발독재기 베트남전 소설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나아가 참전 군인의 영웅화나 피해자 의식을 넘어선 주체적 성찰(애도)이 가능한가⁶⁾를 묻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시각은 베트남전쟁을 반공주의적인 시혜적 시각이나 외화별이의 과정이었다는 발전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베트남전쟁 참전국가로서 가져야 할 전쟁폭력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한국사회의 시각 변화⁷⁾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베트남인에 대한 한국군의 전쟁 폭력, 그 중에서 특히 성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게 된다.⁸⁾

전시 성폭력은 “권력과 지배를 확인하려는 고의적인 행위”⁹⁾로, 상대군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명분 하에 군대 시스템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1(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4; 조서연, 위의 글; 김미란, 「베트남전 재현 양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성의 (재)구성」,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0; 이은선, 「한국 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과 국가의 알리바이 및 젠더 규율 연구」, 『한국문학연구』 6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0.

- 5)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김미란, 김은하의 위의 글 외에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2017의 제2부 근대국가와 ‘만들어진 남자’에 실린 「남자다움’의 안과 밖-1950~1970년대 한국의 비규범적 성애·성별 실천과 남성성의 위치」(김대현), 「국가 남성성 훼손을 땀질하는 불/가능한 영웅-상이용사에서 패럴림픽 영웅까지」(나영정), 「군인, 사나이, 그리고 여자들-젠더화된 군사주의의 문화적 재현」(조서연)이 그 대표적 예이다.
- 6) 김성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김은하, 위의 글.
- 7)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는 예는 2018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민간법적 및 학술대회 등이 있고, 이를 다룬 이한빛, 「가해자 됨을 묻기 위하여-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2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윤충로, 「한국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과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 『사회와 역사』 120, 2019; 김주현, 「국민 국가의 욕망과 과거를 여는 한국/베트남의 시민/인민들」, 『오늘의 문예비평』, 세종, 2018, 고경태, 앞의 책. 베트남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를 둔 이길보라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2020)이나 한베평화재단의 활동이기도 한; 석미화·최나현, 「참전군인의 평화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시 NPO지원센터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21(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718)이다.
- 8) 김현아는 “전쟁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은 남성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고 지금까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남성의 시선에서 기록되고 해석되고 재현되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이 연구의 계기를 밝힌다. 김현아, 위의 책, 9면.
- 9) 수전 브라운밀러 저, 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 봄, 2018 참조.

목인되는 범죄이다.¹⁰⁾ 실제 ‘강간전(戰)’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심각했던 베트남전쟁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성폭력은 군작전, 특히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민간인 학살이나 포로에 대한 폭력 속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불문율이 존재했다¹¹⁾는데, 공식적인 기록에는 이러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테스트에서 성매매의 경험은 형상화할 수 있어도 성폭력의 실상이 형상화되지 못한 것은 전쟁에서의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또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윤리적인 주체에게는 이 행위가 수치심에 차마 형상화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물지만, 1970년대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다룬 소설에서는 이러한 폭력의 경험이 이들의 제대 후 후일담을 통해서 재현된다. 특히 이 경험은 스스로를 ‘변태 성욕자’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송기원의 「경외성서」(1974)나 ‘낙타눈썹’에 대한 도착적 병리를 다룬 「낙타눈깔」¹²⁾(1972)에서처럼 ‘변태적’ 혹은 ‘도착적’인 정신병리학적 징후를 통해 형상화된다.

물론 영화 「하얀전쟁」(1992)이나 「알포인트」(2004) 등 베트남전쟁을 다룬 영화에서도 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정신병리학적 징후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성불능’이란 징후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참전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페니스의 능력’으로 환원되는 남성성의 상실과 등치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이 영화들에서는 이러한 징후의 원인을 성폭력 가해의 기억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¹⁴⁾

10) 하세가와 히로코, 「의례로서의 성폭력-전쟁 시기 강간의 의미에 대해서」, 고모리 요이치·타카하시 테츠야 편, 이규수 역, 『국가주의를 넘어서』, 삼인, 1999, 335~353면 참조.

11) 김현아, 앞의 책, 73~74면. 전쟁 중에는 “적이 강간을 하면 그 적이 얼마나 짐승 같은 자들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만, 우리 편이 강간을 하면 그 사실을 화제로 꺼내는 행위가 정치적 협잡이 되”는 상황이 된다. 수잔 브라운밀러 저, 박소영 역, 위의 책, 116면.

12) 1972년 『월간문학』에 수록될 당시 제목은 ‘낙타눈깔’이다. 원제목을 사용하도록 한다.

13) 조서연, 앞의 글, 157면.

14) 대신, 「머나먼 송바강」, 「하얀전쟁」 등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형상화한 소설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매매의 경험이 등장한다. 신시아 인로는 군인들은 그들 국가의 역량을 기지 근처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지배를 통해 배운다고 한다.(김미란 위의 글, 206면). 이를 볼 때, 대대 소설에서 형상화된 현지 성매매의 형상은 어찌면, 이들에게 성폭력의 기억을 대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나마 이 시기의 소설에서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서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 텍스트가 베트남전쟁 당시나 종전 직후, 1970년대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이들 폭력의 경험이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기억으로 취사선택되고 망각되기 전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을 완수해 낸 동경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들(작가)의 시각도 변화한다. 1980년대 한국사회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용병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들 베트남인들을 민중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¹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베트남전쟁 소재 텍스트의 내용도 변화한다. 1977년 『세계의문학』에 게재된 박영한의 「떠나면 송바강」, 1983년부터 『월간조선』에 연재되기 시작한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등에서 그 서사는 반제국주의적 지향성을 갖는다. 그러면서 ‘지배자 한국 남성 對 지배받는 베트남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젠더 비유는 오히려 더 강화된다.¹⁶⁾ 「무기의 그늘」에서는 이들 성폭력의 실상이 형상화되기는 하지만, 반미 반제국주의적 관점 아래 이 행위의 주체가 미군들로 서사화된다. 또한 「하얀전쟁」의 경우는 개작 과정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적 맥락이 약화된다. 이는 참전 군인들 스스로가 기억투쟁을 통해서 스스로를 가해자에서 명예로운 전사, 국가유공자로 탈바꿈해가는 과정과 일치한다.¹⁷⁾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군의 성폭력 실상이 초점화되기 어려웠다.¹⁸⁾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충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1999년 『한겨레』 21 캠페인과 그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5, 2015 참조. 김미란, 「베트남 참전담론과 미디어: ‘탈식민 민족주의’적 관점과 ‘자국중심적 참전론’, 그 변화과정에서의 미디어의 대중동원 전략」, 『역사와 문화』 19, 문화사학회, 2010 참조.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재, 「베트남전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입장과 젠더 비유의 관련성」, 『우리문학회』 58, 우리문학연구, 2018 참조.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윤인화,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역사』 97, 한국사회사학회, 2013 참조.

18) 안정효의 「하얀전쟁」 개작 과정에 대해서는 이경재,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안정효의 〈하얀전쟁〉 개작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참조. 이 연구에 의하면 안정효는 89년판 『하얀전쟁』에서 한국군이 비인간적인 과잉폭력 행위에 가담한 부분,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반기지 않거나 나아가 저항하는 부분,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전쟁 일반에 대한 비판론 등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변모는 한국사회가 ‘반공 전사’나 ‘경제 역군’이라는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공식 기억을 ‘양민학살’이나 ‘용병’이라는 대항기억으로 바꾸어 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1970년대에 소설에서 이러한 형상이 표현 가능했던 것은,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이었던 1965~1970년대 초반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정신분석학과 정신의학 담론이 대중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¹⁹⁾ 이미 이 시기 대표 소설가인 이청준의 「퇴원」, 「병신과 머저리」, 서정인의 「후송」 등에 등장하는 정신병리학적 징후를 분석한 논의가 증명하듯²⁰⁾ 이 시기 소설과 희곡 등 문학텍스트에는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 징후를 지닌 주체들의 형상이 등장한다.

황석영의 텍스트에 형상화된 주체들의 정신병리학적 징후를 ‘트라우마’란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²¹⁾도 존재한다. 또한 「낙타눈깔」의 군인 ‘나’ 등이 보여주는 ‘성적 욕망’이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 매개된 욕망임을 드러낸다²²⁾고 분석한 논의도 있다. 또한 ‘수치심’을 갖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이 텍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남성성의 의미를 다룬 논의²³⁾도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낙타눈깔」에서 형상화된 베트남 참전

19) 이러한 징후는 1960년의 사단법인 대한정신건강협회의 발족, 1962년 2월 국립정신병원의 출현 등의 움직임이 말해주는 것처럼, 정신의학의 본격적인 제도화와 연관된 것이다. 정신의학사에 의하면, 1970년대는 정신치료와 문화정신의학의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해이다. 정신의학사를 정리한 이부영에 의하면, 1968년 한동세와 1972년 융 학파의 분석가 이부영이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 문화와 정신건강연구계획에 참여하고 온 것을 계기로 김광일의 현지조사연구 성과와 함께 한국문화와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부영, 「한국에서의 정신의학 100년(1899~1999)」, 『의사학』 8(2). 대한의사학회, 1999 참조.

20) 노대원, 「1960년대 한국 소설의 심신 의학적 상상력-서정인의 「후송」과 김승옥의 「차나 한잔」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김지아, 「이청준 초기 단편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9;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박찬모, 「서정인의 〈의상을 입어라〉에 나타난 전이와 환상-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바탕으로」, 『南道文化研究』 39,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참조.

21) 김자영, 「황석영 단편 소설에 나타난 베트남 귀국장병의 트라우마 현상 분석-「돌아온 사람」, 「낙타눈깔」, 「이웃사람」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22) 오태호,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욕 주체’의 양상 연구」,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23) 김은하의 연구에 의하면 황석영의 초기 단편과 박영한의 장편 〈머나먼 송바강〉 등 베트남전쟁 소설은 청춘과 젊음의 회고의 형식을 빌어 씻을 수 없는 죄에 연루된 개인의 뿔랑콜리한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성의 상처를 가시화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은하, 「남성성 획득의 로망스와 용병의 뿔랑콜리아-개발독재기 베트남전 소설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4 참조.

주체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내면적 갈등과 욕망, 그리고 정신병리학적 징후가 서로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송기원의 「경외성서」는 이 주인공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의 기원을 정신적 황폐화에서 찾고 있다.²⁴⁾ 주로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송영의 「선생과 황태자」²⁵⁾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주인공의 정신적 징후가 전쟁의 폭력성을 체험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들 모두, 이들의 정신병리학적 징후가 전쟁 체험 중 내면화된 여성에 대한 위계화된 인식과 폭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초점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전쟁 체험이 발생시킨 이들 정신병리적 징후가 참전 주체들 역시 가해자이지만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혀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미 영화에서 형상화된 베트남전 참전 주체의 트라우마가 “한국군 남성 개인을 피해자화하는 방식으로 참전의 기억을 재현”²⁶⁾하는 데 활용된다고 본 주목할 만한 논의도 있다. 그런데 이 소설들에서는 그들의 내면이 좀 더 복합적인 형상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그 성도착적 징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역시 누군가에 대한 폭력적으로 위계화된 인식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베트남전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애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할 것이다.

II. 1970년대 정신의학 담론의 젠더/섹슈얼리티 인식과 성도착 징후

세계대전이나 대동아전쟁, 베트남전쟁/한국전쟁 등이 정신의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⁷⁾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져 준다. 정신의학자 이부영의 회고

24) 이영희, 「송기원 소설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 『한국문예비평연구』 1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60면. 이외에 김정민, 앞의 글.

25) 오태호, 「감옥소설에 나타난 폭력적 광기의 양상 연구 「태형」, 「인간동물원초」, 「선생과 황태자」, 『오래된 정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이선영, 「가두는 세계와 열어내는 문학-송영의 『선생과 황태자』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26) 조서연,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하기-베트남전쟁 참전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적 재현의 국적과 젠더」, 『현대문학의 연구』 71,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도 한국전쟁 중 군정신의학의 필요성이 이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다.²⁸⁾ 이러한 점은 환자의 치료라는 목적을 갖는 정신의학 담론이, 한편으로는 한국의 해계모니 남성성 규범이 전투적 주체로 구성되는 데 공모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오히려 이들 참전 군인들의 정신병리적 징후는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 당대 참전 담론 속 주체들의 형상이 경제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구성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 직후에는 참전 용사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국가적 노력 속에서 이러한 징후는 규범적인 남성성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참전군인들의 경우 1992년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들의 기억을 의례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고, 조직적 공간적 재현의 장조차 사회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²⁹⁾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트남전쟁 참전 주체들의 정신병리적 징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³⁰⁾에서야 진행된다. 그것도 성도착적 징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개 전투 경험이 가져온 PTSD증상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서 연구된다.

27) 대동아전쟁 당시 군정신의학이 전무했던 상황과 이에 관심을 두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노다 마사 아키 저, 서혜영 역, 『전쟁과 인간-군국주의 일본의 정신분석』, 길, 2000. 중 제3장 마음이 병드는 장병들 참조. 이외에도 정신의학의 발달에 영향을 준 사건이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보편화된 인식이다. 이부영, 위의 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PTSD 증상이나, ‘트라우마’란 용어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정신징후를 치료하면서부터 정립되었다. 주디스 루이스 허먼 저, 최현정 역, 『트라우마-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파주, 2022, 56면.

28) 전쟁으로 인해 서울의대 신경정신의학의 많은 도서를 잃었고, 정신의학자들이 납북 또는 월북하거나 군에 소집되면서 정신과의 진료기능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수복 이후 미8군 121 후송부대 정신과의 지원 아래 군정신의학의 역할이 증대하여 유석진, 오석환이 121부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군에 복무하던 정신과 의사의 재훈련과 이 과를 희망하는 군의관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군의관의 도미 견학과정이 생겼고, 휴전 직전에는 한국군 정신과군의관 양성계획이 수도육군병원에서 유석진의 주도로 실천되었다고 한다. 군정신의학은 미국의 역동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예방정신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부영, 「한국에서의 정신의학 100년 (1899~1999)」, 『의사학』 8(2), 대한의사학회, 1999, 165~166면.

29)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 정치는 심주형, 앞의 글 참조.

30) 최진희·정일진·정문용, 「참전 국가 유공자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 인자」, 『신경정신의학』 36(6),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강성록·김세훈·이현엽,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예측 변인」,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한국임상심리학회, 2014.

또한 당대 한국의 정신의학적 상황 역시 이러한 경향의 원인이 된다. 정신의학자 이부영의 회고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잠시 관심을 받았던 정신의학계의 활동은 1960년 5·16 군사정변 이후의 정책 변화에 의해 다시 위축된다. 당시 통치주체들이 공포한 사회안전법³¹⁾에 의거해 정신질환자의 진료는 치료보다는 수용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19세기 실험실의학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의 신체의학적 추세는 정신의학이 의사-환자 사이의 정상적인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인적 접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주게 된다.³²⁾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전쟁의 폭력적 상황이 만들어 낸 전투신경증, 즉 정신병리학적 징후를 지닌 수많은 주체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특히 정신병자로서의 낙인과 이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두려워 그 존재를 감추다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³³⁾

그러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당대 사회는 주로 미국의 전후 상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나마 베트남전쟁 참전 체험이 가져온 정신병리적 징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참전 군인들은 “수용소의 역겨운 생활에 대한 분노, 전우의 전사에 대한 죄책감, 그 잔인한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우울증 등을 느낄 것”³⁴⁾이라는 기사, 68년 미라이촌 학살사건을 다루면서 “학살동기가 베트콩 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로 미군이 거칠어진데다 오랜 전투에서 오는 피로에 정신이상을 일으켜 불의의 살인을 저지른 것”³⁵⁾이라는 기사도 존재한다. 이러한 담론은 참전 주체들의 신체적 손상 이외에도 정신병리적 징후들이 반전운동 등 당대 여론의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³⁶⁾ 베트남전이 주로 밀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상 징후가 줄었

31) 이부영의 글에서는 “사회방위법”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안전법의 오기인 듯하다. ‘사회안전법’은 “특정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 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75년 7월 16일에 공포되었다가 1988년 폐지가 논의되고 1989년에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32) 〈7월 4일생〉 등 미국 영화에서 등장하는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은 귀국 이후 반전 운동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노력하지만, 베트남전쟁 참전 반대 운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의 경우,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충로, 앞의 책 참조).

33) 강성록·김세훈·이현엽, 위의 글 참조.

34) 「워싱턴 휴전조인때보다 더큰 감격속에」, 『조선일보』, 1973.2.14.

35) 「월(越) 미라이사건에 새불씨 “학살은 마약때문”」, 『동아일보』, 1970.3.26.

다고 선전하는 기사³⁷⁾도 존재하는데 이는 역으로 당대 미국의 통치 주체들이 이러한 점을 의식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신심리학자들은 월남전참전병사 3백80만명 가운데 20~25%인 95만여명이 정서불안증후를 보이고 있”³⁸⁾다고 본다는 1988년의 기사와 비교해 보면, 이 기사는 주체들의 다양한 정신병리적 징후를 덮으려는 참전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하면서, 그 현황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록 한국의 실상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여론을 통해서 당대 지식인들은 이들의 정신병리적 징후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⁹⁾

그러나 이 기사들도 그들의 ‘성도착’ 징후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당대 ‘성도착’ 징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도 연관된 것이다. ‘성도착증’이라는 키워드로 당대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주로 196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하다가, 1970년대에는 그 횟수가 다소 늘어난다. 그래도 이는 ‘오이디푸스’, ‘노이로제’ 등 정신분석학 및 정신의학적 기호의 대중화된 현황과 비교할 때, 그 수가 극히 적은 편이다.⁴⁰⁾

36) 주석 27번 참조.

37) 기사문은 “2차대전당시 전쟁의 가장 때문에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병사들의 수는 1천명 중 44명, 한국동란때는 22명이나 되었는데 월남전에서는 1천명 가운데 12명으로 줄어있다고 육군당국이 발표”했고, “이는 월남에서의 밀림전이 장시간폭력을 수반하지않는 보다 조용한 전쟁이기 때문이라고(워싱턴-UPI)” 전한다. 「미군 정신병리화(罹患) 감소 美軍(미군) 精神病罹患(정신병이환) 감소 越南戰(월남전)『조용하기때문』, 『동아일보』, 1966.4.21.

38) 「플래툰을 精神病(정신병)치료에 활용」, 『경향신문』, 1988.5.6.

39) 그 결과 수많은 텍스트에서 변주되고 있는 베트남전쟁 참전 주체들의 정신병리적 이상 징후에 대한 인식은 당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텍스트에서도 베트남전쟁 참전 주체들에게 정신병리적 징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월남 참전후 정신병앓아 「드라마게임」〈KBS 2 밤9.00〉」, 『동아일보』, 1996.06.23. 등이다.

40) 「男子(남자)에도 ‘露出症(노출증)’ 있다」, 『경향신문』, 1964.9.9.; 「變態性欲(변태성욕)환락장」, 『조선일보』, 1965.12.23. 등 수 개가 존재하고 이후 1970년 이후에는 「韓國的(한국적)상황」, 『동아일보』, 1970.3.20.; 「世界(세계)의 實態(실태)」, 『동아일보』, 1970.3.20. 등 기사의 수가 해마다 한 번꼴로 늘어난다. 성도착증 환자가 아내와 아이들 죽이는 심리적 과정을 서사화한 정음병의 「일과 구원」 역시 1977년 발간되었다 한다. (『매일경제』, 1977.7.20.) ‘오이디푸스’란 키워드로 당대 기사를 검색해보면(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오이디푸스는 해마다 한 건씩 등장하다가, 1975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당대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왕」 번역극 상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노이로제’는 60년대 이후 해마다 5~10건씩 등장한다.

정신의학은 인간 내면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⁴¹⁾ 그러나 정신의학이 통치 규율 권력과 공모가 가능한 학문이라고 바라본 푸코⁴²⁾의 주장처럼, 한국에서 이 정신의학 기호의 유행은 ‘건전한 국민의 육성’이라는 당대 통치 주체의 요구와도 맞물리는 것이었다. 당대 자살 담론에 대한 통치 주체들의 규율 과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발전주의적 인간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서에 대한 규율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비관적 정서에 대한 규제와 함께 자살 담론도 억압되었고,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정신위생의 문제로 논의되면서 정신의학적 지식권력이 형성되기 시작”⁴³⁾한다. 실제 당대 통용되는 ‘노이로제’ 징후는 ‘포디즘’의 도입 등, 날로 치밀하게 착취 구조화되고 있는 노동 현장에 있는 주체들의 고통을 형상화해 내는 데 활용된다. ‘히스테리’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기호는 특히 당대 여성들에게 순응적인 여성(모성)상을 강조하며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된다.⁴⁴⁾

이렇게 보수적인 상황에서 ‘성도착’ 징후는 “남사스럽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가십으로만 치부되었던 성적 실천의 낙인”으로 인식되어, 공론장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⁴⁵⁾ 그래도 미디어에서 “변태 성욕”, “성도착”이라는 기호는 간헐적이

41)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쇼터는 이들 광인과 정상의 구별이 오히려 이들 환자들을 구원했다는 입장이 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정신 의학의 역사-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바다출판사, 2020 참조.

42) 푸코는 19세기 이 학문이 「광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혼란, 모든 변칙, 모든 비정상의 문제, 모든 크고 작은 혼란스러운 변칙적 행동들을 질병과 정신병의 주변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 나남 출판, 2004, 161면.

4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승화, 「자살과 통치성-한국사회 자살 담론의 계보학적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2 중 제3장 참조.

44) 1959년 12월호 『사상계』에 게재된 김동립의 「대중관리」는 날로 폭압적으로 진행되어가는 노동(화이트칼라) 현장에서 주체들이 겪는 억압을 신경증적 징후, ‘노이로제’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의사학』 26(2), 대한의사학회, 2017 참조. 오이디푸스 담론 번역은 ‘아버지 살해’라는 모티브, 즉 당대 가부장적 부권의 쇠락과 모권의 부상에 따른 공포가 만들어낸 ‘여성 혐오’가 그 토대를 이룬다. 이에 대해서는 박지영, 「좌절된 동성 연대와 모성의 소거-탈식민 이후 한국 남성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불)가능성(1960~1970년대)」, 『여성문학연구』 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참조.

45) 김대현, 「남자다움」의 안과 밖: 1950~70년대 한국의 비규범적 성애·성별 실천과 남성성의 위치」,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그런 남자는 없다-혐오 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한다.⁴⁶⁾ “억압된 성충동이 내면적으로 폭발하면 사디즘매조기즘 기타 성도착증세로 발전하는데 이런 환자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전혀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성(性)타부사회에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동아일보』, 1970.3.2.)이라는 기사의 존재가 그 예이다. 가부장제적인 시선으로 이를 다룬 기사도 존재한다. 정신의학자 이동식은 “노출증 환자는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있”지만, 이는 주로 “여자의 역할을 싫어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녀, 특히 아들을 통해서 살려는, 집안을 휘두르고 공격적인 어머니를 가진 아들”에게서 나타난다(『경향신문』, 1964.9.9.)고 분석한다.

해방 이후 ‘성도착증’을 의미하는, ‘변태성욕’이란 기호는 주로 범죄와의 연관성 속에서 신문지상에 등장하곤 했다. 여기서 변태성욕자는 뭔가 일반적인 존재가 아닌, 기괴한 폭력성을 내재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변태적 섹슈얼리티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성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이성애’ 규범이 아닌 모든 것을 통칭한다. 1970년 발표된 당대 대표적인 정신의학자 한동세의 논문 「한국인의 성도착증」에서도 “성도착증은 의학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이고 법적인 문제이며, 환자들이 반듯이 병원에만 찾아오지 않으며,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도착 행위가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수가 많다”⁴⁷⁾(25면)고 전하면서 1959년부터 1969년까지 성도착증으로 진단받은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그 사례로 삼은 세 건은 모두 동성애자였다. 그는 “한국 문화는 성의 억압과 억제를 잘 하여 이땅에 동성애나 근친상간이 드물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 글을 볼 때에도 당대 인식에서 성도착 징후는 이런 가부장제 사회문화적

2017, 123면.

46) 다른 말로 ‘성도착’이라는 이 용어는 소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성적 실천이나 태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변태’라는 말은 흔히 ‘정상이 아닌 상태로 달라짐’이란 뜻을 갖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이렇게 이 기호는 ‘변용된 형태’라는 뜻으로 활용되더니, 이 기호는 어느 순간부터 “정상이 아닌 성욕이나 그로 인한 행위. 또는 그 성욕을 가졌거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소위 “변태성욕”이라는 뜻으로 상용화된 듯하다. 이 용어들은 식민지 규율 권력과 의료권력, 그리고 형성 중에 있었던 자본주의적 소비시장이 서로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근대적 개념의 ‘여성’, ‘남성’, 그리고 ‘이성애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1920~30년대 구성된다. 식민지 시대 변태적 섹슈얼리티 관념의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차민정, 「1920~30년대 ‘변태’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35면.

47) 한동세, 「한국인의 성도착증」, 『신경정신의학』 9(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70 참조.

정체성을 토대로, 여성과 비규범적 성애·성별 실천을 인지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동식의 분석처럼 당대 사회의 가부장제를 ‘전통’이라면서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당대의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기도 하다.⁴⁸⁾ 그리고 “도착 행위가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수가 많”다는 지적은 자칫 동성애 환자들을 미리 범죄자 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룬 이 세 가지 동성애 사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당대 정신의학계는 성도착 징후를 이성애 중심의 규범으로만 재단하여 통칭하고, 정작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는 하위 범주의 징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⁴⁹⁾ 이러한 성향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를 지나면서, 한국 정부가 이원 젠더와 이성애 섹슈얼리티 규범을 더욱 강화하는 법 정책을 추진하고, 통치에 적합한 남성성을 조형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⁵⁰⁾ 그 결과 이러한 기호들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고 이에 순응하여 이 시기 언론에서는 비규범적 성적 실천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게 줄어 든다.⁵¹⁾

48)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적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는 한국인의 기본 성인식이 “생식지상주의”로, 그 과정에서 “남자들의 양기만을 문제삼고”, “여자들의 음기는 강력히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족 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사회에서는 서양에서 동성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역오이디푸스 관계”나, “핵가족의 파탄” 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대현, 「정신의학자 한동세(韓東世)의 문화정신의학과 여성 및 비규범적 성애·성별 배제의 성격」,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참조.

49) 김대현, 위의 글 참조. 물론 1973년 이후 정신의학계에서는 동성애를 성도착증(학명 paraphilias, sexual deviation), 즉 병으로 진단하지 않고, 성적취향 sexual orientation의 문제 내지 하나의 life-style로 본다. (민성길 외, 『최신정신의학(제4판)』, 일조각, 1999, 449쪽) 심리학의 ‘성도착’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서도 이 LGBT가 빠져 있다. 성도착증에는 가학증(sadism), 피학증(masochism), 패티시즘(fetishism), 복장도착증(transvestism), 소아성애증(pedophilia), 노출증(exhibitionism), 관음증(voyeurism), 마찰도착증(frotteurism)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도착증이 성범죄와 연관된 징후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한다(이수정, 위희정,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14(4),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406면).

50) 이러한 검열 상황은 이전부터 이어지던 보수적 젠더/섹슈얼리티 규범과 자연화된 관행, 이러한 상황을 남사스럽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가식으로 치부하였던 인식이 확장된 결과였다. 김대현, 「‘남자다움’의 안과 밖: 1950~70년대 한국의 비규범적 성애·성별 실천과 남성성의 위치」,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앞의 책, 123면.

51) 72년 10월 유신에 앞서, 71년 문화공보부는 ‘퇴폐풍조정화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10월 1일부터 영화, 드라마, 쇼, 무대공연, 각본 중에 “1) 정사 2) 여성 신체의 반라 또는 전라 장면 3) 여성 신체의 외설적인 장면 4) 동성애의 묘사 5) 기타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외설적인 내용”을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다룬 텍스트에서 ‘사물성애(페티시즘 fetishism)’, ‘시체성애(necrophilias)’ 등 이러한 정신병리학적 징후가 활용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당대 상황을 비추어 보면,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체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 성도착적 징후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형상으로 인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의 내면은 매우 복합적인 형상을 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징후와 동시에 이들 텍스트에는 이들을 바라보는 공모자의 분열증적 징후, 전투신경증도 형상화된다. 이러한 점은 당대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다룬 소설이 체현하고 있는 남성성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중층화된 형상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그런 면에서 이 형상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징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쟁 폭력의 주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란 문제의식을 풀어보고자 한다.

Ⅲ. 전투신경증과 성도착적 징후: 폭력의 연쇄, 피해자에 대한 애도 불가능성

1. ‘여성 혐오’와 성도착/신경증-정신병리학적 징후의 이원적 젠더화

앞으로 분석할 송영의 「선생과 황태자」, 황석영의 「낙타눈깔」이 두 소설에서는 베트남전쟁 참전 주체들의 정신병리적 징후로 전투적 남성성에는 성도착(페티시즘)적 징후를,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의 형상으로는 전투신경증, 우울증적 징후를 배치한다.

1970년, 베트남전쟁이 진행 중인 시기에 창작 발표된 송영의 소설 「선생과 황태자」는 전범들이 모인 감옥의 위계화된 권력 구도를 통해서, 전쟁의 폭력성이 한국사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정신병리적 징후가 등장한다.

삭제할 것을 규정했다(김대현, 위의 글).

이 서사의 주인공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찌면 환자가 아닐까 하는 착각 증상”을 지닌 신경증 환자이다. 그는 이러한 징후를 “표면에까지 드러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사내”다움에 미달인 징후라고 고백한다.⁵²⁾(545면) 여기서 말한 “남달리”,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공연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의식의 징후에서 그 “남”은 한창 베트남 참전이 독려되었던 시기, 이 주인공이 몸담았던 군대의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주인공이 군에 항명을 하고 탈영하여 떠돌아다녔던 것이 7년이라고 하니, 그 시기는 첫 베트남전쟁 파병이 이루어졌던 1964년 즈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의 항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술되지 않지만, 그즈음의 군대 내부의 분위기를 그가 견디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주인공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있는 군대 감옥에 갇힌 폭력적 상황에서 이 서사는 출발한다.

거기서 그는 폭력적 질서의 상위자인 베트남전쟁 전범인 방장 이 중사와 향후 새로운 ‘네로’가 될 황태자인 정철훈 하사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주인공 이외에 참전자였던 이들은 서사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신병리학적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휴가 중 상관을 폭행한 이중사는 물론, 수백명을 무더기로 살상한 ‘양민학살’로 베트남 군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 하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은 전쟁 폭력을 “나쁜 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니 부인할 필요도 없었”고, 전쟁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손쉬운 변명 아래, 자신들이 한 폭력 행위에 대한 자의식이 없다.⁵³⁾ 단지 상관이 총을 뽑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그저 자신의 잘못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이중사처럼. 이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고장을 쓰는 데에만 집중한다. 그나마 주인공은 이러한 항고장을 쓰기 위한 쓰임새를 인정받아, ‘선생’이란 호칭을 얻으며 이중사의 비호 아래서 감방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들 중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정하사이다. 이중사조차도 “섬뜩할 때가 있다”고 느끼는 눈빛의 소유자, 주인공이 보기에 그는 “튼튼하고 즐거운 사나이”는 “하지않은 일로도 자주 혼자서 별쭇별쭇 웃기를 잘한다. 이따금 신바람이 나서 춤추는 듯한

52) 송영, 「선생과 황태자」, 『창작과비평』 5(3), 1970.9, 545면 참조(이후 인용구와 본문에서 면수 명기).

53) 노다 마사아키, 서혜영 역, 앞의 책, 49면.

걸음걸이로 걸어”다니고, 무기징역이라는 형기에도 불구하고, “남을 조롱하고 싶은 충동이 없이는 그럴 수 없는”, “느긋한 걸음걸이, 능글맞은 웃음”(568면)을 띠고 다니는 정 하사는 오히려 이 감방 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간수인 조수병이 단지 그의 직책 때문만이 아니라, ‘편치력’으로 압도하는 신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최상위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듯, 이들의 권력적 위계는 누가 가장 폭력적인 남성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래서 이 간수 조수병, 그리고 방장 이중사, 그의 후계자 정하사,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순열, 말단인 오태봉 등 신참들 순으로 권력 구조가 구성된다. 그나마 항소장을 잘 쓸 수 있는 지식인이라는 외피 때문에, 이들의 보호를 받는 순열의 모습은 이들 사이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보일 정도이다. 이들 중 양민 학살이라는 가장 무거운 폭력 전과를 가진 정 하사가 다음 권력 수장의 후계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이들의 권력은 늘 먹이사슬처럼 오태봉 등 말단에 가해지는, 약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지탱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여성들은 상상 속에서도 늘 폭력의 대상으로, 이 권력 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애긴 그녀를 어떻게 조졌느냐 이거요.

이 때 이 중사가 2호실 안에서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

이 중사의 참말에 대해 실내에서는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웃을 만한 시간이 아닌 데다가 그보다도 이 중사의 참말은 그들에게도 역시 참말이었던 것이다. (550~551면)

이는 순열이 감방 안에서 이들을 상대로 심심풀이용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이들이 대화 속에서, 여성들을 “조졌다”라는 폭력적 언술을 기대하는 심리는 권력자 이중사와 하위자인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 순열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 여성을 바깥로 설정하고 만나는 결말을 구성하자, 실망하는 이들을 보며, “조지지 않아도 조졌다고 얘기”하라는 이중사의 조언은 이러한 점을 증명한다. 그리고 물론 순열이 비록 폭력으로 결말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등장한 성매매의 형상 역시 그 여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본으로 사유화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순열 역시 여성을 대상화시킨, 남성들만의 동성연대 서사의 공통

창작자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소설의 서사에서는 변소 벽에 붙여 놓은 여성 사진(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페티시즘적(도착적) 징후가 등장한다.

이 새까, 난 공주님을 범했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해.

.....

선생, 변소에 있는 내 마누라 보았수?

순열씨에겐 얼핏 떠오르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비록 젊고 예쁘기는 하지만 창부처럼 천박하게 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하필이면 변소문의 안쪽에서 괴로운 사나이들을 유혹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온몸을 발가벗고 꽃이 만개한 메밀밭을 헤치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580면).

이 공간에서는 모두가 이를 욕망하지만, “데빍님의 애첩”(582면)이라는 춘화 사진에 대한 소유권 역시 권력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다. 이 페티시즘적 징후 역시 전쟁이나 성별이 분리된 감방 안, 남성들만의 권력 구조 내부의 폭력적 인식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육체 사진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지배, 페니스 강박증이 존재한다.

포르노그래피는 소비자인 남성에게서 모든 사회적인 속성을 제거한 뒤 다시금 남성성을 회복시키는 매개이다.⁵⁴⁾ 프로이트는 이 징후의 원인이 남성이 “정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상실되어버린 남근을 절편음란증(페티시즘)을 통해 부활시키고 보존하려는 욕구”⁵⁵⁾라고 주장한다. 거세불안을 느끼는 남성들일수록 여성 신체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그 불안이 관음증(voyeurism)으로 대체된다.⁵⁶⁾ 여기서

54) 우에노 치즈코는 남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자원의 가치를 능가하며, 힘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남성에 있어서 최강의 자원이 바로 쾌락에 의한 여성의 지배라고 비판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무력할지라도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다른 모든 마이너스카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남자의 신념은 뿌리 깊고, 그 사실은 포르노그래피의 정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에노 치즈코 저,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28~130면.

55) 프로이트는 여기서 절편음란물이란 남자아이가 한때 그 존재를 믿었던 여성의 남근, 혹은 어머니의 남근의 대체물이라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정일 역, 『절편음란증』,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302면.

는 여성의 육체 (사진) 자체가 페티시의 대상이 되며, 남성들은 이 사물에 감옥에 갇혀 위기에 처한 자신의 남성성이 거세될 수 있다는 공포를 투사하고, 그 과정에서 전투적 남성성을 회복 보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강력한 전쟁 폭력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순열에게도 위계화된 시선을 드러낸다.

이거 봐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 본 일 있소?

그는 통명스럽게 묻자, 순열씨는 다소 당황했다. 그는 하사가 이렇게 묻는 의도를 알았다.

난 총들고 싸우러 나가면 재미가 나요. 질질매고 쫓무니 빼는 새끼들은 이 해가 안 간다 이거요. 그날 우리는 베트남 포로를 무더기로 잡았죠. 구덩이에 안 들어가겠다고 양탈한 여자 하나가 있었죠..... 내가 이년을 겨누고 쏘는데 한발 쏘았더니, 대가리가 이마 위쪽만 칼로 둥글게 쪼갠 듯이 날아 버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눈만 남아가지고 날 무섭게 노려 보잖아요. 날 무섭게 증오하는 눈초리로, 난 자기를 미워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눈을 겨누고 한 방 더 쏘았죠.(584~585면)

정하사는 순열에게 “당신은 전쟁을 나가 본 일이 있소?”라고 확인한다. 그는 순열이 적을 죽여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하사가 순열씨를 경원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런데 “싸워보지 않았다면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총들고 싸우러 나가면 재미가 난”다는 정하사의 전쟁무용담은 약자인 여성을 신형M16으로 쏘았던 기억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화된다.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가 남성들이 아니라 유독 “날 무섭게 노려보는 여자의 눈”이 자신에게 보냈던 증오하는 눈빛을 감방 동료들에게 여러번 반복해 이야기 한 것이다. 이는 약자라고 얕잡아 보았던 존재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뒤섞인 감정을 기반으

56) 정신분석학에서는 관음증과 페티시즘을 남성이 성적 차이(자신과 여성, 성적 타자)에 대한 자신의 공포와, 그가 그 차이(거세)의 결과라고 느끼는 거세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본다. 페티시즘에 대해서는 수잔 헤이워드 저, 이영기 역, 『관음증/페티시즘』, 『영화사전』, 한나래, 1997, 46~47면. 프로이트의 페티시즘이 주로 남성의 가부장적 시선에 의한 것이라면, 여성주의적 인식에서 페티시즘은 대상화된 여성의 시선에서 남성적 시선에 의해 정형화된 페티시즘을 공격하고 해체한다.

로 한다. 또한 이는 이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위계화된 시선으로 젠더화⁵⁷⁾시켜 사고했기 때문에 구성된 기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잔인한 폭력적 남성성의 기원이 특별히 누구에 대한 혐오를 기반한 것인지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혐오 감정은 이들이 지닌 성도착적 징후를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반면, 이러한 폭력성의 기원을 알게 된 순열의 울음은, 수치심이 없는 그 폭력의 민낯에 대한 공포감, 군 제도에 대한 반발로 항명까지 수행했던 자신이 그 내부에서 비호를 받고 살았다는 점에 대한 자책감, 그러한 자신의 양심이 더 이상 이러한 폭력적 위계 질서에 어떠한 균열도 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감의 소산이다.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들 사이에서 느낀 주인공 순열의 윤리적 좌절감은 서사의 마지막에 멈추지 않는 격렬한 울음을 우는 정신병리적 형상으로 드러난다. 이는 이를 그저 “오랫동안 구경”하고 있는, 이 감옥의 권력자들의 무심한 폭력성과 대비되어 형상화되면서 이들 수치심을 모르는, 폭력적 주체들이 추구하는 전투적 남성성과는 대척적인 위치에 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서두에서 이 징후의 원인으로 꼽았던 “남”들, 군인들의 인식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성’의 범주에 가까운 행위가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주인공이, 이들 폭력적 주체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정신병리적 징후를 지닌 남성적 위계 질서의 외부자가 되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그 전투적 남성성에 균열을 낸다.

황석영의 「낙타눈깔」에서도 서두에 주인공의 정신병리적 징후가 등장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한낱 “정신 신경성 공포증 환자이며 전투 부적격자”⁵⁸⁾라고 고백한다.(155면) 이 서사에서는 「선생과 황태자」와 달리, 주인공이 시달린 신경증의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준다. 그는 귀국 후 일상에서도 “팔없는 몸뚱이들”, “상반신이 잘려나간 하체들” 등과 “모조리 요리해”라는 상부의 지시를 환영으로 떠올리며 그 전쟁에서 체험한 각종 폭력이 이 징후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힌다.(163~164면)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신경이 쇠약해진 건 전투 탓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인용구에서처럼 자신이 그전에 가졌던 “국가가 추구하는 옳은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에 군인의 명예가 있다는 생각이, 이 전장의 경험을 통해서 무참하

57)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젠더화시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김미란, 위의 글 외 다수.

58) 황석영, 「낙타눈깔」, 『월간문학』, 1972.5. 154면.

게 깨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베트남에서 “큰놈 작은놈 할거없이 모조리…사람같이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휴양 첫날의 에피소드, 아이들조차 이들을 조롱하는 베트남
인들의 모습 때문이다. 그들은 이 경험으로 자신들이 이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침입
한 꼴이 되어버린 불청객”일 뿐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161면)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주체가 가져온 유일한 “귀국준비물”이 미군에
게서 얻은 ‘낙타눈썹’이었고, 그나마 “가짜”였다는 사실은 복합적인 상징성을 갖는
다. ‘낙타눈썹’은 점령군 미군의 차별적 시선 사이에서 자존감을 잃은 한국 군인이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현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낙타눈썹’에 대한 페티시적 강박이 상징하는 페니스 중심의 섹슈얼리티
인식 역시, 앞서 분석한 감옥 속의 주체들처럼, 당대 베트남전쟁 참전 남성들의 파괴
된 남성성을 재건하는 데 활용된다.

이 서사에서 등장하는, 귀국한 이후 제대 군인인 김상사와 동행하던 중 주인공이
목격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이 장면에서 김상사와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추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구하는데, 이후 김상사는 그녀를
대상으로 은혜를 빙자한 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소리친다.

“내가 뭇땀에 차를 세우구 애녀석들을 쫓았겠어. 그런 녀은 당해 싸다구. 자
길 지킬 능력두 없는 게 왜 으스스한텔 싸다녀? 도와줬으면 고마운 기색이라두
있어얏 거 아냐.” (166면)

이 구절에 의하면, 김상사는 자신의 성폭력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오히려
폭력의 대상이 “당해도 싸”다고 하며,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리고 폭력에서 구해준
대가를 그 대상이 되어 갚아야 한다는, 그야말로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폭력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면모는 한국군과 베트남 관계의 메타포로도 읽힐
수 있다. 이 장면은 앞서 언급된 베트남 아이들에게 조롱당한 에피소드와 연관된
것으로, 미국의 용병으로 반공 전사라는 미명 하에 수행된 참전이, 본질적으로는
은혜를 빙자한 베트남인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는 통찰을 보여 준다. 이 주체들도
이러한 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더욱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문제는 그 대상이 약자인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귀국 후의 사회 상황은 이들의 불안한 내면의 정체를 확인시켜 준다. 그들은 귀국 후 들린 술집에서 젊은이들이 “개선용사란 수지맞은 축과 골로간 축을 분간해야 한다”는 비양냥거리는 소리를 듣는다.(159면) 귀국 이후 그들을 맞이하는 사회의 시각은 생각보다 냉소적이고 냉정했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에 대한 배신감에 그들이 수행한 일은 또 베트남에서처럼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 베트남전쟁 중 미군에게 느꼈던 굴욕감을 보상받고자 미군 전용 나이트클럽에 가서 성매매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 도구가 미군들이 제공했던 ‘낙타눈썹’이라는 기묘한 매개체이다.

그가 손가락을 내 입에 쑥 집어 넣었고, 혀 끝에 꺼끌꺼끌한 감촉이 느껴졌다. …… 나는 입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뭘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왼쪽 볼따구니 속살과 이빨 사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술기운이 깨는 탓인지 명치 끝이 쓰러오며 토악질이 솟아올랐다. 우욱하면서 토사물로 가득찬 입을 막고 충계를 내려갔다. ……

연거푸 헛구역질을 하는 나를 향하여 누군가 뻔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깊숙하게 뚫린 변기구멍 위에 얹힌 낙타눈썹이었다. 쾅하니 흡뽀 사자(死者)의 씹어문드러진 눈이 되어 그 바닥없는 어둠은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168면)

이 구절을 보면, 이미 이 주인공은 이러한 행위가 시도도 되기 전,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도착적 징후는 점령군(미군) 남성성이라는 존재성에 대한 심리적 강박을 상징한다. 주인공은, 이러한 굴욕감을 미군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 대상이었던 여성에게 대한 성매매 혹은 성폭력으로 되갚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 행동이 또 다른 위계화된 폭력을 승인하는, 참혹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낙타눈썹은 정신병리적 징후인, 환각 속에서 “쾅하니 흡뽀 사자(死者)의 씹어 문드러진 눈”이 되어 주인공을 응시한다. 이 형상은 주인공이 느꼈던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죄의식의 소산이다. 이 치욕스러운 행동의 잔해인 낙타눈썹은 이러한 행위로는 절대로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징후도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 것이다.

이러한 점을 느끼고 “토악질”을 하는 위 장면은 이 서사에서 이들 참전 장병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도 끝내 미군에게 빼앗긴 권력과 성적 욕망, 그 어떠한 것도 실현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2. 죽음 충동과 성도착, 그리고 애도불가능성-송기원의 <경외성서>

“변태성욕자”라는 혐의를 쓰고 있는 한 살인자가 등장하는 송기원의 「경외성서」에서는 사디즘과 메저키즘이 혼합된 ‘죽음 충동(타나토스)’의 행위를 수행하는 주인공의 살인 행위를 다루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누구보다 많이 적을 죽”인 주인공은 넥타이로 지나가던 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다.

여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의 시선에
는 벌써부터 여자가 죽어 가는 모습이, 그리하여 여자의 육체에 차츰 죽음이
장미꽃처럼 눈부시게 번져 가는 모습이 앞당겨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목
이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꼈다. 갈증은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나로 하여금
온몸의 뼈마디 마디를 비틀게 했다. …… 나는 재빨리 넥타이 끈을 여자의 목
에 걸었다. 힘을 주어 끈을 졸라매자 여자는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한
마리 새끼 새처럼 파닥거리다가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며 나에게 기대어 버렸
다. 나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의 모든 감각들은 열대의 눈부신 태
양과, 쿵쿵 울리는 포성과, 번들거리는 수목의 잎사귀와. 솟구치는 핏방울들,
혼합된 어떤 균류 속에서 나를 허우적이게 했다.

나는 알 수 없는 쾌감에 거의 숨이 넘어갈 것처럼 혈떡거렸다. 나는 급기야
사정을 해버렸다.⁵⁹⁾

그는 자신을 한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낀 “변태성욕자”라고 서술한다. 이는 자신의 쾌감을 위해 살인을 하는,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형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이런 고백을 듣고, 검사도 그에게 “정신분열증의 징조”가 있다면서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는 “검사가 나를 변태성욕자로 치부하는 것에 별로 불만이 없”으면서도, “나로서는 결코 돌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지경”이라고 고백한다. 이는 그가 그 이유를 모두

59) 송기원, 「경외성서」, 『중앙일보』, 1974.01.01.

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살인’에 중독이 된 계기는 그가 이를 수행하게끔 만드는 환각에서 드러난다. 그 환각 속에서 그는 여전히 “열대의 눈부신 태양과, 광광 울리는 포성과, 번들거리는 수목의 잎사귀와 솟구치는 핏방울들, 혼합된 어떤 균류 속”에서 있다. 그는 여전히 베트남전쟁에서 겪은 폭력적 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과의 소통을 거부한다. 이러한 폐쇄된 내면은 자신의 형량을 줄여주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검사와의 대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자신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확신하고 있는 검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범죄심리학에나 적혀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있는 검사는 절대로 자신이 체험한 끔찍한 폭력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의 심문방법으로는” 그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 한다. 더구나 “검사님, 낙타 눈썹을 아세요? 낙타 눈썹이요”라며 음란한 도구라고 인식되는 ‘낙타눈썹’을 소환해서 검사를 놀리기까지 한 것을 보면 그에게는, 자신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그 공포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는 듯하다. 그가 믿든지 말든지 실제 자신을 환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 폭력의 현장으로 이끄는 매개는 “낙타눈썹”이었고, 이를 통해 주인공은 검사에게 자신이 겪은 폭력의 기억을 전달하고 싶어한다.

이후 이를 매개로 이 서사에서는 주체의 폭력적 기억이 소환된다. 첫 번째 작전을 나갔을 때, 그의 부대는 베트남 여성을 한 명 생포하게 되고, “살인의 경험이 없는 신참에게 살인을 가르침으로써 용맹심을 길러준다는 뜻에서”, “관습에 따라 분대원 중에서 제일 신참인 내가 여자의 처치를 맡게 된”다. 거기서 그는 스스로의 의지가 통용되지 않는, 폭력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선 그 여성을 짐승처럼 ‘암놈’이라고 부르고, 그를 희롱하는 상황을 목도한다. 그러다 그녀가 독침으로 자신을 희롱하는 분대장을 독침으로 살해하자, 주인공에게 단검이 쥐어진다. 그 순간 그는 그 여성의 눈빛과 맞닥뜨린다. “나의 기척에 여자가 감았던 눈을 뜨고 나를 쏘아보”았고, 나와 “여자의 시선이 나의 것과 부딪치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그 여자의 시선 속에 “체념 · 분노 · 증오, 그리고 하소가 뒤섞여 번뜩이는 광채”를 목도한다. 회상 속 이 장면은 그가 끔찍한 죄책감, 그리고 성도착적 징후에 시달리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 역시 앞서 분석한 「선생과 황태자」에서 정하사에 의해 감옥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화되었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폭력적 기억과 유사하다. 이들 모두 베트남 남성보

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소환해내는 데 그 근원에는, 약자인 존재가 감히 자신에게 덤벼들었다는 감정, 여성혐오적 정서와 더불어 죄의식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하사는 이러한 죄의식을 남성영웅적인 무용담으로 덮으려 했고, 이 주인공은 그것이 무의식 깊숙이 자리잡아 정신병리적 징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인공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면에는, 그 자신이 백정의 아들로, “니 애비 따라서 백정 짓을 하려면 짐승이나 잡을 일이지”라는 검사의 폭언 속에서 드러나는 대로 사회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던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베트남 참전이 주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주체들이 동원되었던 사정과도 연관된 것으로, 특히 그 눈빛은 백정인 주인공의 아버지가 살상 직전에 직면했던 짐승들의 것과 유사하다. 주인공 아버지인 백정도 살상 직전에,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는 뱀이 아니”라면서 그 대상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 이러한 제의는 주체가 생명체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에서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정마저 생략된다는 점을 작가는 이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살인에 대한 공포, 희생자에 대한 공감과 죄책감은 그 시체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뒤튼린 강박을 낳는다.

그러자 여자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참으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자의 육체가 차차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떤 충격으로 나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시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비틀거린 나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이해하여주어야 한다. ……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여자의 육체를 더듬었다. …… 만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것일 수도,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여자를 사랑한 셈이 된다.

나는 여자를 파묻기 위하여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여자를 구덩이에 누인 다음 여자의 입술에 결별의 입맞춤을 했다. 입술은 이미 차가웠다. 여자의 입술을 나의 것에서 느끼며 나는 눈물이라도 쏟을 것 같았다. 알곳은 쾌감과 막연한 어떤 슬픔이 뒤범벅이 되어 가슴속에 가득히 차 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사랑의 표지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옳지! 나는 수첩의 갈피 사이에 끼워두었던 낙타눈썹을 꺼내었다.

시체를 파묻기 전 주인공은 그 시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것은 살인을 했다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고, 폭력의 주체였던 “나의 추악한 몸뚱아리”에 대비되어,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정당성이 생산해 낸 아름다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신체를 이 주인공은 백정의 아버지처럼, 정상적인 의례를 갖추어서 보내지 못한다. 그가 전쟁에서 배운 ‘천국’은 고작 ‘낙타눈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그 여성에게 낙타눈썹을 선사하는 것을 통해, 변칙적으로 자신만의 의례를 행한다. “낙타눈썹을 선사한 여자 이후로 살인은 나에게 마약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는 ‘낙타눈썹’을 통해 살인의 정당성을 주조해 낸다. 그리고 “시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비틀거린 나”, 시체성애자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는 살인에 중독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의 행위는 마치 트라우마적 순간을 지독한 ‘반복 강박’으로 수행하는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의 형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프로이트에 의하면 자아는 초자아에게 굴종하여 처벌에 대한 욕구, 처벌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요컨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완화시키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⁶¹⁾ 이러한 주인공의 병리적 징후는 그가 이미 한번의 살인으로 더 이상 교정의 여지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한계를 경험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가 ‘낙타눈썹’을 시체에 선사하는 비상식적인 제의는 바로 이 점을 인식한 주체의 허무한 행위이다. 주인공은 이 병리적 제의를 통해서 끝내 자신의 수치심을 지울 수 없었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살인’이라는 반복적인 죽음 충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낙타눈썹」의 주인공처럼, “무슨 사상의 차이 때문이라거나 높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욕망”, 즉, 나에게 마약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살인” 그 자체만을 향유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는 “시체를 대할 때마다” 거기서 “죽음이 장미꽃처럼 붉게 피어 오른다는 느낌” “그 장미꽃에서 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간과 오히려 새로운 의미가 되어 나를 취하게 하는 싱싱한 삶”을 보는 시체성애자, 살인자가 된다.

전장심리학에 의하면, 전쟁에서 주체들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은 어떠한 이념적

60)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61) 맹정현, 『프로이트 패러다임』, 위고, 2015, 270면.

정당성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기 소집단(부대)의 생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가는 집단으로부터 경멸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 한다.⁶²⁾ 그러나 여기서 형상화된 그의 도착적 행위는 이러한 힘마저 사라진 극단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연쇄 작용 속에, 그는 이제 그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온전히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인 폭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신병리적 주체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이 서사의 초입부에서부터 자신의 살인이 “결코 돌발적인 살인”이 아니며, “나는 내가 가까운 날에 꼭 살인을 할 것이라고 예감했”다는 고백을 통해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그의 살인은 그저 반복적인 강박에 의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만을 보았을 때, 그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다분히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짙은 존재이다.⁶³⁾ 그러나 그는 이 서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혐의를 벗을 진술을 마련한다. 그는 백정인 아버지가 평생 죽인 소에 의해 죽은 것처럼, “나도 살인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살해당해야 했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살해당하지 않고서는 이 행위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지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러한 고백은, 그가 가진 일말의 인간적 양심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자신은 살인자일지언정, 사이코패스는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듯하다.

이를 통해 이 서사는 가해자였던 주체가 폭력적 상황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주체로 귀환하지 못하고 도착적인 징후를 지닌 존재, 특히 사회가 가장 비난하는 연쇄살인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이 서사는 이러한 전쟁의 폭력성이 결국 극악무도한 살인자, 그것도 ‘변태성욕’이라는 정신병리적 징후를 갖는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결말로 인해 이 서사는 결국 주체가 살해를 저지르는 것은, 살인을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폭력적 위계 질서와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하는 전장의 공포에 의한 것이었다는 데 주제의 초점을 맞추게

62) 존 키건 저, 정병선 역, 『전쟁의 얼굴』, 지소, 2005, 57면.

63) 정신병질이 성향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면, 우선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타인을 기만하고 공격성을 표출시키며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적 특성을 나타낸다. 박지선·조준택,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이코패스 관련 언론 보도 실태 및 추세」, 『한국경찰연구』 12(4),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된다.

앞서 분석한 「낙타눈깔」의 결말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서사의 의미는 전쟁의 가해자들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⁶⁴⁾이다. 여기서 분석한 이 두 서사에서는 그 수치심이 성도착적 정신병리적 징후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경외성서」에서처럼 주인공이 희생자를 위해 수행한 시체성애의 제의 역시 그 어떠한 정신의학적 논리를 댄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폭력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낙타눈깔」에서는 낙타눈썹을 번기에 토해 내는 행위를 통해, 「경외성서」에서는 자신이 그나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서사들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고통은 위로받고, 죄에 대한 이해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이 서사는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희생자의 고통을 서사화하지 못한 채 이들의 수치심은 정작 수행해야 할, 그들에 대한 애도를 완수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이는 이미 앞서의 인용구에서 드러난 대로, 피해자 여성의 형상이 남성 가해자의 관점에서 미학화되어 형상화되면서 철저히 타자화되었다는 점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피해자 재현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이 서사에서 희생자 여성의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못한 채 가해자 남성의 회한 속에 또 한번 관음증의 대상이 될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⁶⁵⁾

Ⅲ. 군사적 남성성에 대한 반항과 공명 사이-당대 한국 남성의 정신 병리적 징후들

결론적으로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서사화한 이 텍스트들에서 드러난 전투신경증

6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은하, 앞의 글 참조.

65) 최근 학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재현의 윤리에 대한 고민이 깊다. 논의로는 영화 〈한공주〉를 다룬 박우성, 「자기 반영성 영화미학의 윤리적 가능성과 한계-〈한공주〉(이수진, 2014)의 재현 방식에 대한 일고찰」, 『드라마연구』 49, 한국드라마학회, 2016; 〈나는 신이다〉 논쟁을 다룬 김신현경, 「가해자의 시선을 따르지 않는 재현,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일보』, 2023.05.2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810270002532>) 등 참조.

과 ‘변태 성욕(성도착)’, ‘사물도착증(관음증)’, ‘시체성애’ 등의 징후들은 모두 베트남전쟁의 폭력상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정신병자로서의 남성상은, 개발독재 체제가 요구하는 강한 남성상과는 대척적인 지점에 있는 형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추구하는 누구나 감추고자 한 ‘변태성욕자’로서의 형상, 권력이 감추고자 한 이 형상을 이 서사의 주체들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소위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범주에 드는 남성 주체들의 형상을 통해서는 전쟁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행위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반대로, 그만큼 정상적인 인간이 수행해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정신병리학적 장치는 자신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나마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주인공들의 징후는 어쩔 수 없었던 공포스러운 폭력 상황에 놓였던 주체가 스스로에게 갖고 있었던 연민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시에 “계속되는 정신과적 어려움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참전 군인 병원 구석의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들의 존재는 문명 사회가 잊으려 애쓰는 수치심이 되었”⁶⁶⁾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형상의 존재성은 그 자체로, 전쟁 후 국가가 강제하는 기억 방식에 저항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 형상을 통해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강한 남성성의 허구성이 폭로된다. 이 서사들은 이 정신병리학적 징후를 통해 이 전쟁 폭력이 요구하는 남성성이 비정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서사들에 의하면, 이 전투적 남성성에 반항하면 히스테리적인 분열적 남성성(PTSD)이나 여기에 공명하게 되면 사이코패스적 징후를 갖는 성도착증의 남성성이 구성된다. 「선생과 황태자」에서 등장하는 전범자나, 「낙타눈깔」의 상병들, 그리고 비록 선처를 호소하지는 않지만 「경외성서」 주인공의 태도는 ‘사이코패스’적 징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착의 징후를 지닌 남성성은 이러한 반항과 공명 사이에서 균열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징후의 비정상성은, 「경외성서」의 주인공이 이로 인해 감형받았던 것처럼, 그 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정상적인 애도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66) 주디스 루이스 허먼 저, 최현정 역, 앞의 책, 51면.

갖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학 용어가 번역되는 과정에는 탈식민 이후 한국/베트남전쟁, 그리고 억압적 자본주의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구성된, 이러한 남성중심의 섹슈얼리티 인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투고일: 2023.04.28

심사일: 2023.05.15

게재확정일: 2023.06.20

참고문헌

- 송기원, 「경외성서」, 『중앙일보』, 1974.01.01.
- 송영, 「선생과 황태자」, 『창작과비평』 5(3), 창작과비평사, 1970.9.
- 안정효, 「전쟁과 도시」, 『실천문학』 6·7, 실천문학사, 1985.4~6.
- 한동세, 「韓國人의 性倒錯症」, 『신경정신의학』 9(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70
- 황석영, 「낙타눈깔」, 『월간문학』, 1972.5.
- _____, 『무기의 그늘』 상/하, 형성사, 1989
- _____, 『삼포 가는 길』, 문학동네, 2020
- _____, 『탑』, 문학동네, 2020
- _____, 『만각 스님』, 문학동네, 2020
- 영화 <하얀전쟁>(1992), <7월4일생>(1990), <알포인트>(2004), 이길보라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2020)
- 고경태, 『베트남전쟁 1968년 2월 12일-베트남 풍니·풍넛 학살 그리고 세계』, 한겨레출판, 2021
- 권현익 저, 유강은 역, 『학살, 그 이후-1968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인류학』, 휴머니스트, 2012
- _____, 홍석준·박충환·이창호 역, 『베트남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 김현아, 『그녀에게 전쟁-여성의 눈으로 전쟁을 말하다』, 슬로비, 2018
- 노다 마사야키 저, 서혜영 역, 『전쟁과 인간: 군국주의 일본의 정신분석』, 길, 2000
- 마야 뒤센베리 저, 김보은·이유림·윤정원 역,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은밀하고 뿌리 깊은 의료계의 성 편견과 무지』, 한문화, 2019
- 맹정현, 『프로이트 패러다임』, 위고, 2015
-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 나남 출판, 2004
- 민성길 외, 『최신정신의학(제4판)』, 일조각, 1999
- 박태균, 『베트남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 수전 브라운밀러 저, 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 봄, 2018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2017
- 에드워드 쇼터 저,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바다출판사, 2020
- 우에노 치즈코 저,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 윤충로, 『베트남전쟁과 한국 사회사』, 푸른역사, 2015
- 주디스 루이스 허먼 저, 최현정 역, 『트라우마-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2022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 존 키건 저, 정병선 역, 『전쟁의 얼굴』, 지소, 2005
- 강성록·김세훈·이현엽,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예측 변인」, 『한국심리학회지:임상』 33(1), 한국심리학회, 2014
- 김경민, 「기억의 재구성과 반성의 문학-베트남전쟁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2, 한민족어문학회, 2018
- 김대현, 「정신의학자 한동세(韓東世)의 문화정신의학과 여성 및 비규범적 성애·성별 배제의 성격」,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 김미란, 「베트남전 재현 양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성의 (재)구성」,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의대 역사문화연구소, 2010
- _____, 「베트남 참전담론과 미디어: ‘탈식민 민족주의’적 관점과 ‘자국중심적 참전론’, 그 변화과정에서의 미디어의 대중동원 전략」, 『역사와 문화』 19, 문화사학회, 2010
- 김성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 김신현경, 「가해자의 시선을 따르지 않는 재현,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일보』, 2023.05.2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810270002532>)
- 김우성, 「베트남 참전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은하, 「남성성 획득의 로망스와 용병의 멜랑콜리아-개발독재기 베트남전 소설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1(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4
- 김주현, 「특집논문-파월 특파원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전쟁」, 『현대문학의 연구』 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_____, 「월남전 후반기(1970~1975) 귀환 서사에 담긴 ‘한국민 되기’의 (불)가능성」, 『語文論集』 70, 중앙어문학회, 2017
- 김지아, 「이청준 초기 단편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9
- 노대원, 「1960년대 한국 소설의 심신 의학적 상상력-서정인의 「후송」과 김승옥의 「차나 한잔」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 문승숙, 이현정 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국민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또하나의 문화』, 2007
- 박선영, 「한국 여성연쇄살인사건의 여성학적 재조명 Top 10%-유영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사례분석」, 『젠더와 문화』 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9
- 박우성, 「자기 반영성 영화미학의 윤리적 가능성과 한계-〈한공주〉(이수진, 2014)의 재현 방식

- 에 대한 일고찰」, 『드라마연구』 49, 한국드라마학회, 2016
- 박종수, 「1970년대 이현화 희곡의 남성성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7
- 박지선·조준택,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이코패스 관련 언론 보도 실태 및 추세」, 『한국경찰연구』 12(4),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 박지영, 「좌절된 동성 연대와 모성의 소거-탈식민 이후 한국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불)가능성(1960~1970년대)」, 『여성문학연구』 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 박찬모, 「서정인의 <의상을 입어라>에 나타난 전이와 환상-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바탕으로」, 『南道文化研究』 39,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 방재석, 「베트남전쟁을 통한 의식의 변화양상 비교연구」,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서은주, 「월남과 한국소설 속의 월남전-집단광기의 역사, 그 고통의 담론」, 『역사비평』 32, 역사비평사, 1995
- 수잔 헤이워드 저, 이영기 역, 「관음증/페티시즘」, 『영화사전』, 한나래, 1997
- 심주형,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양창순, 「성과 성장애」, 민성길 외, 『최신 정신의학(4판)』, 일조각, 1999
- 오태호,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욕 주체’의 양상 연구」,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 이경재,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안정효의 『한안전쟁』 개작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_____, 「베트남전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입장과 젠더 비유의 관련성」, 『우리문학』 58, 우리문학연구, 2018
- 이부영, 「한국에서의 정신의학 100년(1899~1999)」, 『의사학』 8(2), 대한의사학회, 1999
- 이수정, 위희정,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14(4),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 이은선, 「한국 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과 국가의 알리바이 및 젠더 규율 연구」, 『한국문학연구』 6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0
-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 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의사학』 26(2), 대한의사학회, 2017
- 장석만, 「페티시즘의 개념사-그 발명과 의미망」, 『종교문화비평』 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6
- 정승화, 「자살과 통치성-한국사회 자살 담론의 계보학적 분석」, 연세대 박사논문, 2012
- 조서연,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 서울대 박사논문, 2020

- 조성숙, 「근대문화와 남성」,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서울, 199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정일 역, 「절편음란증」,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 차민정, 「1920~30년대 ‘변태’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 최현주, 「사이코패스 범죄보도의 젠더 담론: 강호순사건에 대한 방송3사(KBS, MBC, SBS)의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 하세가와 히로코, 「의례로서의 성폭력-전쟁 시기 강간의 의미에 대해서」, 고모리 요이치 · 타카하시 테츠야 편, 이규수 역, 『국가주의를 넘어서』, 삼인, 1999
- 석미화 · 최나현, 「참전군인의 평화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시 NPO지원센터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21(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718)

Violence and Perversion

— Significance of Psychopathological Signs in Vietnam War Novels

Park, Ji-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1970s literature texts dealing with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Song Young's "Teacher and Crown Prince", Song Ki-won's "Awesome Bible", and Hwang Seok-young's "Camel Eyes". The purpose is to examine how psychopathological signs such as these are used to accuse this war viole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psychiatry and the popularization of discourse during this period, these major concepts met the violent situation of the Vietnam War at the time, failed to establish any normal ethical standardization, and became composed of abnormal sexuality violent to women. Based on the misogyny committed during the Vietnam War, sexual violence produces subjects that can only be shaped by using these psychopathological symptoms. This is a gender dimension problem related to the shape of 'masculinity' formed by the contemporary developmental dictatorship, patriarchal and oppressiv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and violent experiences such as the Vietnam War. It shows that it contained abnormality from the beginning. So, these signs are used to reveal the shame of male subjects who have ethical self-consciousness about war violence, and have a fatal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mourn the victims while only comforting their pain.

Key Words : The Vietnam War, masculinity, psychiatry, Freudism, psychopathology, perversion, PTSD, psychopaths, abnormality, mourning

